

2011년 3월 16일 수요집담회

발표자: 서동주(HK연구교수)

사회자: 이경분(HK연구교수)

제목: “다이쇼적 감성과 ‘데모크라시’의 문화표상-천황제 내셔널리즘의 다이쇼적 변용의 시점에서”

박사학위 작성시는 쇼와초기의 사회주의문학을 모더니즘, 식민지주의와 결부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와 관련해 야나기 무네요시와 같은 민예운동이나 백화파에도 관심이 있었다, 사회주의 하다보니까 다이쇼 시기의 대중사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다. 그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공유하는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착목해서 ‘다이쇼적 감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이쇼시기를 통해 드러나는 심적 태도를 이르는 것이다. 단편적인 문화나 사상들을 하나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개 개념이다. 오늘은 주로 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다이쇼적 감성이란?

다이쇼를 대표하는 것은 데모크라시, 대중= 그리고 핵심은 민본주의다. 민본주의는 천황이라는 주권자를 인정한 위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 이것은 형용모순인데, 당시에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실제로 있지만 없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민본주의가 확산될 수 있었다. 수행적인 수준에서 천황에게 부여된 신성함이나 초월성이 부정된 것이었다.

결국은 다이쇼적 감성이

천황과 내셔널리즘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예술지상주의 ‘불경’소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다이쇼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장군]은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것이다. 예술지상주의자인 그에게 다이쇼적인 감성이 천황을 어떤 식으로 보게 만들었는가를 확인하게 보게 만드는 사례이다. 1922년 개조에 발표된 소설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은 러일 전쟁, 여순공약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1-3장은 살육자인 N장군, 4장은 그의 아들이 생각하는 N장군과 부하 소장이 생각했던 그가 교차하고 있다.

검열-이 소설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복자처리 되어 있다.

집필시기-22년 1월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쇼와유신의 시작과 거의 겹쳐지고 황태자의 섭정취임. 다이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는 시기.

캐릭터-N장군은 노기 마레스케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 둘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인데, 노기는 메이지 천황을 따라서 죽은 인물이다. 따라서 N장군-노기 마레스케-천황의 연결구조도 형성되는 것 소설의 제목-[장군], 아시하라 킨지로는 다이쇼시기에 유명인, 1881년 메이지 천황이 동북지방 순행할 때, “어이 형님, 좀 기다려 달라”고 라는 이야기를 던졌다가 스가모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그 후에도 미디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노기도 병문안을 갔는데, 러일전쟁에서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했고 노기는 황제에게 치하받는 것처럼 예를 갖췄다. 아시하라는 자신을 황제와 동
일시해서 아시하라황제라고 자칭했고, 미디어는 이를 아시하라장군으로 지칭했다(불경죄때문에)
1914년 도쿄다이쇼박람회에서는 노기와 아시하라 두 장군의 석고상이 인기를 끌었다. 박람회에서
아시하라와 다이쇼 천황은 광기를 공유하는 인물. 상징적 등가물.
N장군-노기메라스케-아시하라-다이쇼천황 의미상으로 매개되고 그래서 기호의 수준에서 N장군=
다이쇼천황이 호환관계가 됨.

포인트

: 4장의 부자간의 논쟁.

- (1) 아버지가 N장군의 초상화를 거실에 걸어놨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 렘브란트의 소녀상을
대신 부착. 두 사람이 N장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차이 확인. 아들은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권위에 대한 생리적인 반발심(다이쇼적 감성), 아버지는 인간적 친근함으로
N장군 기억. 그의 카리스마에 대한 언급은 없어.
- (2) 메이지 세대 VS. 다이쇼 세대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다이쇼적인 것을 대표한다. 아
버지는 메이지 세대지만 지극히 다이쇼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시가, 서양풍 의자...).
- (3) 아버지가 아들을 권위로 설득 못하고 평행하는 논쟁. 아버지조차도 설득에 실패하는 것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논쟁은 다이쇼적인 분위기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다른 양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아사히 헤이고의 유서

아사히 헤이고라는 사람이 다이쇼적인 토양 안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의 천황관은 나카무라 소장
의 N장군상과 매우 유사하다. (권위보다는 친근함)

*쇼와의 내셔널리즘은 메이지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이쇼적으로 한 번 바뀐 것이다

위의 부자간의 논쟁은 권위에 대한 상이한 인식, 권위자체에 대한 일체의 부정 VS. 친근함으로 변
용된 권위.

3. 대중미디어와 내셔널리즘- '예술대중화논쟁'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문학과 다이쇼적인 감성

:예술대중화논쟁을 중심으로.

1928-30년 사이에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 내부에서 예술대중화의 원칙에 관한 논쟁. 어떻게 프롤
레타리아들에게 프롤레타리아 소설을 읽힐 수 있을 것이냐. 문학가들 사이의 논쟁으로 문단사내
의 문제로 다루어졌는데, 이것인 사실은 '공공성'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1925년 보통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시화되면서 대중의 이미지가 가시
화되었고 그들을 타겟으로 한 미디어와 출판물들이 나오게 되었음.

[킹]이라는 잡지는 일본에서 최초로 백만 독자를 가진 잡지, [엔본].

1) 재미에의 강박관념.

예술대중화논쟁의 핵심도 어떻게 어떤 재미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 재미를 강하게 의
식하고 있었던 것. 재미가 문학의 담론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이 됨.

2) 천황에 관한 신성함의 분열.

대중미디어를 통한 천황 표상의 유통은 표상의 신성함과 표상을 담은 매체의 물질성 간

의 분열이 가속화됨. 천황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됨.

4. 다이쇼적 감성의 종언과 행방.

나카노 시게하루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다이쇼적 감성의 종언을 보여줌. 쇼와시기에 강력하게 부활한 천황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이 시가 아닌가. 천황암살에 관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마지막 부분. 다이쇼적 감성을 용인하지 못하는 쇼와내셔널리즘의 시대를 두고 그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짐작됨. 후일 나카노 시게하루가 자신의 천황관에 대해 회고한 글이 있는데 당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천황에 대한 생리적 증오가 있었음을 고백. 조작된 권위를 표출하는 천황의 표상에 대해 강한 생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쇼와유신파로 다이쇼적 감성 계승.

:대표자는 기타 잇키. 잇키가 쇼와천황을 해파리연구가로 언급한 것은 천황에 대한 친근함을 표출한 것. 국민은 천황의 적자다 라는 논리는 천황이 해파리연구가라 하더라도 자신을 천황의 일부로 복종시키는 심리 내포되어 있다.. 친근한 아저씨와 같은 사람에게 일부러 종속된다는 구조가 있다. 나카무라 소장이 n장군을 회상하는 이미지와도 닮아 있다.

메이지 천황이 부성적이고 카리스마적 이미지였다면 쇼와천황의 이미지는 친근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었다.

결론

1. 다이쇼적 감성

-다이쇼시기의 사소설은 사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점을 거부하고 개인적 폐쇄적 공간으로 시점을 맞추어서 리얼리즘 추구한다.

-미의 판단 기준이 감상자의 직관에 의해서 미가 판단된다. 초월적 기준에 대한 부정.

-혼합민족론, 일선동조론 = 국체론을 가능하게 하는 천황이라는 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자들의 수용이 가능한 경계의 의식들이 만들어졌던 것. 천황이 내셔널리즘을 규율하는 힘을 갖기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혼합민족론들이 유입이 되었다.

2. 다이쇼적 감성의 유산

-냉소주의 (전시기에도 관철된)

-좌익들이 전쟁과 협력해가는 사상적 여정들. 현실과 자신의 내면간의 불일치를 연결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전향, 동아협동체론 등이 아니었을까.

3. 쇼와시기의 특징은 메이지라는 것이 있다가 다이쇼적으로 뒤집어졌다가 쇼와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다이쇼를 통해 바뀐 메이지가 바로 쇼와이다.

다이쇼시기의 천황이미지는 대중사회에서 권위의 운명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었다.